

## 3. 일본 농림수산물 쌀 소비대책 잇달아

도쿄지사

## 3-1 주요내용

## ▶ 쌀가루 용도별로 3가지 기준설정

- 일본 농림수산성은 쌀가루의 이용확대를 위해 용도별 분류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박력분, 강력분, 중력분 세가지 용도별로 판매하는 밀가루를 참고하여 2017년 4월 이후부터 쌀가루를 성분별로 과자/빵/면 제조용 3종류로 분류·표시하여 판매 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사용법에 맞추어 쌀가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쌀가루의 수요발굴 및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 주식용 쌀의 수요가 매년 약 8만톤씩 감소하는 가운데 쌀가루는 밀가루의 대체품으로 수요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쌀가루용 쌀의 연간 소비량은 2만톤 전후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용도에 맞는 쌀가루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쌀가루의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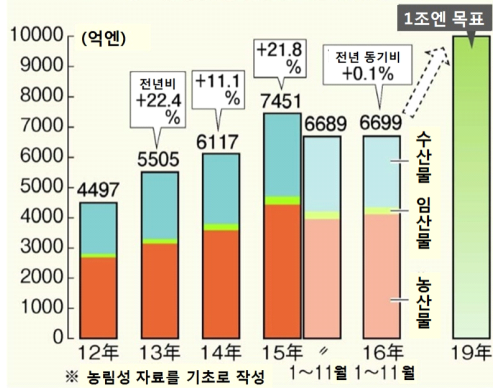
## ▶ 북미 외식기업을 겨냥한 일본 쌀 수출 확대 추진

- JA(일본농협)와 쌀 관련 제조업체 등이 가입되어 있는 전일본 쌀·쌀관련 식품수출촉진협의회(이하 전미수)와 일본 농림수산성은 '17년부터 북미시장으로의 일본산 쌀 수출확대 대책을 강화한다. 북미 시장은 가정 내 수요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식 레스토랑 등 외식시장을 겨냥하여 현지 요리사 대상 홍보나 상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일본산 쌀 수출액은 약 22억엔('15년 기준)이지만 대부분은 아시아시장으로, 대미수출은 약 1억엔 규모에 그치고 있다. 북미 소재 일본 외식레스토랑 수는 2만 5100점포('15년기준)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미수는 농림수산성의 보조사업을 활용하여 북미시장 내 외식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산 쌀 판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 1월10일에는 미국·샌프란시스코, 12일에는 캐나다·밴쿠버에서 외식사업자 및 요리사 대상의 홍보행사를 열어 일본산 쌀을 사용한 요리시연, 일본 술 제조 강좌, 상담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 ▶ '16년 일본산 농수산물 수출액 전년 수준

- 순조롭게 성장해 온 일본 농수산물 수출액이 '16년에는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16년 1~11월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6,699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10억엔) 증가했다. 쌀과 쇠고기, 녹차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수산물 수출부진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 일본산 농림수산물 수출액 추이



※세부 내역 ('16년 11월누계)

부류	금액(억엔)	전년비
농산물	4,102	3.7%
- 쇠고기	114	3.6%
- 녹차	103	2.0%
- 쌀	23	4.5%
수산물	2,356	-5.6%
임산물	241	-
합계	6,699	0.1%

### 시사점

- 일본에서는 식생활의 다양화로 쌀 소비가 점차 축소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쌀과 쌀가공품 소비 및 수출대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 쌀가루는 밀가루에 비해 고가이고, 사용방법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급성장은 기대할 수 없으나 앞으로도 꾸준히 신규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 쌀 및 쌀 가공품의 대일 수출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워낙 일본산 쌀이 다양하고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 수입쌀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 4. 일본, 수출거점으로써의 도매시장 활용

오사카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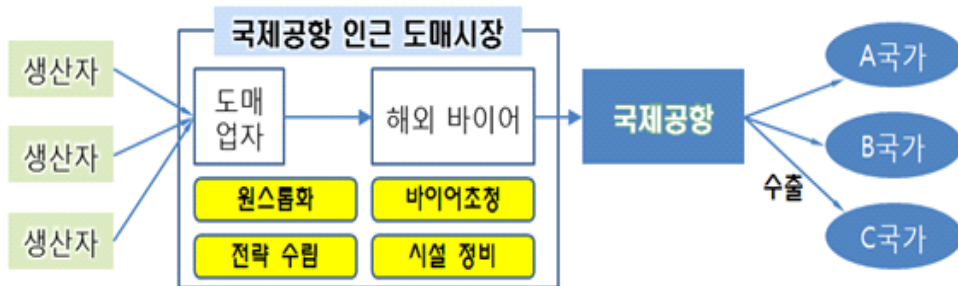
### 4-1 주요내용

#### ▶ 일본, 수출거점으로써의 도매시장 활용 배경

- 일본 정부는 일본 내 농수산물 수요가 감소하는 한편,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일식 붐이 불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시아 국가를 주요 타깃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 2019년까지 농수산물 수출액 1조엔(약 100억불)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매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일본산 청과물의 90%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도매시장이 집하·분산 및 정보교환 기능을 활용해 수출할 경우 생산업체가 개별로 마케팅, 안전기준파악 등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 도매시장 활용의 기대 효과

- 농림수산성은 2013년 중앙도매시장 1곳 당 585억엔이었던 수출실적을 2020년 632억엔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2015년부터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도매시장의 수출 거점화를 지원하는 ‘국제농산물 시장 구상 추진사업’을 시작하여 시장조사, 자온관리 설비 설치 등을 지원했다.
- 특히 국제공항 인근의 도매시장은 수출 관련절차 효율화, 수송기간 단축, 혼적에 의한 물류비 절감 등의 관점에서 일본산 농수산물 수출촉진 거점(국제농산물 시장)이 되어 해외바이어를 불러들이는 등 적극적 판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도매시장의 활용 사례 및 전망

〈나리타시 공설 지방도매시장〉

- 농림수산성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자 유럽, 중동에 일본산 농산물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영국에 채소 등을 시험 수출했다. 도매시장 내에 검역 장소를 설치하고 검역담당자를 파견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출절차 원스톱화’를 실현해 유통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다.

〈후쿠오카 다이도 청과(후쿠오카시 청과시장 도매법인)〉

- 후쿠오카 다이도 청과는 도매시장의 집·출하 기능을 활용하여 농산물 수송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수출용 청과물을 저온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입업체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하카타항을 통해 적기에 출하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온도·산소 조절이 가능한 CA컨테이너(controlled atmosphere)를 이용하여 신선도를 2주간 유지할 수 있으며, 항공편보다 약 10분의 1수준으로 수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시사점

최근 일본의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확대 노력의 일환 중 도매시장을 수출거점으로 하는 방안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과 유사한 도매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